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8년 3월 15일 토요일 | 제50호



최금식 대표이사, 서부산 세무서 일일서장 체험

제42회 납세자의 날
2008. 3. 3



지난 3일 최금식 대표이사는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부산 세무서에서 일일서장 체험을 했다. 이번 일일서장은 과거 '정실 납세자상(부총리상)' 수상과 세금 납부 여부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선보를 설립할 당시 몇 푼이 되지 않는 돈으로 사업등록증

을 발급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느새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일일서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의미 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여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분야, 세정지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서에서 일을 할 때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일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서부산 세무서 조동호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직접하고, 세무서 내 각과 축하와 더불어 격려 인사, 문서결재 등 실질적인 일일서장역할을 수행했다.



빛나는 졸업장을 내 품에

지난달 21일 본사 직원들의 졸업식이 진행됐다. 부산기계공고를 비롯하여 부산전자공고, 해운대공고 등 8명이 졸업했다.

특히 부산기계공고는 산학협동위원회 위원장인 최금식 대표이사가 참석해 축하연설 및 우수한 학생들에게 위원장상과 전자사전을 수여했다.

구평 공장 설계팀의 허수 직원은 "졸업 전에 취직을 해서 감회가 새롭다. 졸업 후 대학진학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지만 선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

고 있다. 졸업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의 반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사에 열정을 다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업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생산2팀 이홍석 사원은 지난달 15일 동의과학대 전기전자과를 졸업했다.

본사에서는 매년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축하의 의미에서 소양념갈비 등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우리 회사 동의과학대학 부산기계공고간 취업약정제 사업 협약

우리회사는 동의과학대학 부산기계공고간 취업약정제사업에 협약 하였다. 취업약정제사업이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산업체, 전문계고, 전문대학, 지자체, 지방교육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0명의 약정 학생을 다수의 산업체에 분산 배치하여 교고에서는 산업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고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을 거친 후 12월경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하게된다.

이로서 산업체는 전문 기능 인력의 지속적인 채용이 가능해 졌으며, 학생은 취업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고 교고, 대학등의 교육기관은 산업체 맞춤형 교육에 의한 인력 양성 및 배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영혁신 | SB2012



기분을 지키자! 회사 생활 예절 법칙

월간혁신리더 08년 2월호 발췌 (p.44~45)



1. 상사에게 두 번 인사하는게 왠지 쑥스러워서...

두 번 인사하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 일부러 눈을 피하거나, '뺨뺨한' 분위기를 만들곤 하는 L씨.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에 대한 정성이다. 인사는 상대방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다. 형식에 얽매어 딱딱한 인사를 나누기 보다는 상대방을 향해 미소를 짓고,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특히 이미 한번 인사를 나눴다고 일부러 인사를 피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예절 습관. 두 번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소와 함께 목례를 해도 문제 없다.



4. 도대체 허리는 어느 정도 숙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고객을 만날 때는 정중하게 45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고객을 전송하거나 상사가 퇴근할 때도 정중히 인사한다. 남자의 경우 주먹 안쪽을 바지 재봉선에 가볍게 대고 허리를 숙이며, 여성은 오른손이 왼손을 가볍게 덮어 손을 겹친 채로 하복부가 가볍게 대고 상체를 숙인다. 팀장급 이상의 상사나 동료 직원이 출퇴근 할 때 상사에게 지시나 보고를 받았을 때는 30도 각도로 숙여 인사한다. 15도 정도로 숙이는 가벼운 인사는 복도나 실내에서 만났을 때, 두 번 이상 만났을 때,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을 때 한다.



2. 지각한 적이 있는데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했다면,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상사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한다. 출근 후에는 인사와 함께 상사에게 정중한 지각 사유에 대해 분명하고 정직하게 말한다.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사과를 하는게 우선이고 예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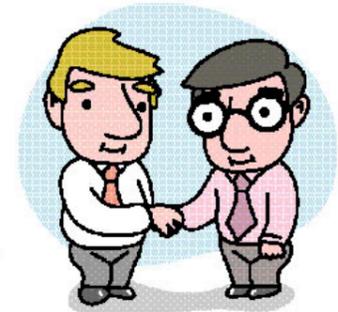
5. 상사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퇴근했을때...

정중하게는 말했는지 몰라도 멘트는 잘못됐다. 상사에게는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상사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퇴근할 경우에는 아직 일이 많은신가 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없지요? 라고 말하는게 예의다.



3. 저는 분명히 인사를 했거든요.

상대방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체크해 보자. 인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6보 이내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어느 정도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 측방이나 갑자기 마주쳤을 때는 뜰들이지 말고 즉시 인사를 해야 한다.



TIP. 놓치기 쉬운 인사예절

- 부하가 상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며, 남녀간에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할 때 한다.
- 연장자와 악수할 경우 아랫사람은 허리를 약간 굽힌다.
- 누군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소개받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모두 일어서다.
- 명함을 건넬 때는 오른손으로,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다. 받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손가락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명함을 받으면 공손히 읽고 정중하게 간수한다. 명함에 메모를 하거나 마구 구기는 행동은 무례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본다.

대표이사 복지기금 출연 및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전달

우리 회사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직원을 선정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출연한 출연금으로 구성된 복지기금을 대출하고 있다.

작년 2007년도에는 출연금 총 누계 182,979,788 원으로 이중 103,950,000원을 신규 대출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상 입원자 및 직원 위로금과 동호회 지원금으로 쓰였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좀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A THOUSAND SPLENDID SUNS
천 개의 찬란한 태양

2007년 아마존닷컴 최고의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4주 연속 1위!
너무 슬퍼서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이야기
이 세상 모든 딸들의 가슴을 울리는 책!
전반의 포화가 휩쓸고 간 아프가니스탄.
그 폐허의 땅에 남은 두 여자. 절망과

고통뿐이었던 잔인한 시절을 살아낸 그녀들의 찬란한 슬픔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
2003년 데뷔작인 「연을 쫓는 아이」로 미국 문단에 혜성처럼 등장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 2007년 그가

흔신을 다한 두 번째 작품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출간 즉시 아마존닷컴 베스트 1위', '24주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 1위', '출간 6주 만에 140만 부 판매 돌파', '영화화 결정 등 수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 기록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탄탄한 구성, 뛰어난 서사, 그리고 잠시도 책장을 놓을 수 없게 하는 흡입력으로 절찬받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존재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의 질곡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자의 안타까운 운명과 자기희생 그리고 사랑이 구원수 거에 이르게 한다.

가볼만한 여행지 | 진해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현장을 만나다

한 사람의 10년 후를 보려면 그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라는 말이 있다. 또한, 독서라는 글자가 평생지식을 쌓는 디딤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TV, 만화영화 방영 등의 환경은 어린이들의 독서 최적조건과 멀어 보인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무분별한 매체의 영향으로 좋지 못한 습관, 집중력 부족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만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책 읽는

습관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진해시 석동에 위치한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몇 년 전 "책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건립된 곳이다.

기존의 삭막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했던 도서관의 이미지는 벗어 던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인 만큼 자유로운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유아 방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나이대 별로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어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책과 친해질 수 있게 만든 점 또한 돋보인다. 맞벌이 부부가 성행하는 요즘 평소에 읽어주지 못했던 책을 이 공간 안에서 읽어줌으로써 아이들과의 친밀감 또한 높일 수 있다. 또한 갓난아기부터 중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관리 상태 또한 양호하다.

두 발을 날카롭게 지나가던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스며드는 요즘, 하루 정도 다양한 매체로 인해 독서습관을 기르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진해 기적의 도서관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맑은 공기와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는 공간에서 같이 책을 읽는다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얼굴이 함께 밝아질 것 같다.



업무의 전문화, 주인의식 고취, 친절·성실·신의·고객감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신성피팅.

신성피팅은 2000년 '신성수도배판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그 다음해인 2001년에 신성피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팀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성피팅은 총 17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신성피팅이 선보와 인연을 맺은지는 약 6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선보와의 접촉이 있었다. 신성피팅 박양모 대표는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의 정석' 신성피팅

업체에서 구하지 못한 자재들을 구입해 납품을 하면서 인정받았다. 조선용 피팅의 조선용 기자재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보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선보와의 거래역시 빈번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회사 성장 원동력

신성피팅은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모든 가격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납품단가를 고객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박양모 대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재 파동으로 생길 재고도 대처를 해서 고객의 공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보와 관련된 일에는 '5분대기조'라고 불릴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선보에서 제품을 발주함과 동시에 당일 납품을 목표로 그것을 달성하려 노력한다. 시간을 요하는 업체인 만큼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납품은 생명이라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신성피팅을 올해도 분주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매출 신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중국 수출 또한 준비하고 있다. 철강과 합작해 시장개척을 하려는 의도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의 개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계속적인 연구를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피팅 박양모 대표는 "선보와의 거래가 평탄하게 지속되어 온만큼 앞으로 더 원활한 납품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4호 칭찬 릴레이~

장정현 반장 (추천인: 성기모)

간간할수록, 따져볼수록!

자신이 맡은 아이템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요. 다른 동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태도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칭찬 릴레이 24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어떤 소감보다도 우선 얼떨떨해요. 칭찬 릴레이에 선정됐다는 사실도 불과 며칠 전에 추천자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한 팀으로 일을 할 때는 매사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자신이 맡은 부분은 더욱 더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 끈을 놓지 않고 집중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템을 생성해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은 한 사람이 아닌 팀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제가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모두가 함께해서 받은 성

과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게다가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받은 칭찬이라 그 기쁨이 배가 되었어요.

평소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세요?

일을 할 때는 태도와 행동 모든 것이 중요해요. 한 가지만 뛰어나다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졌을 때 일의 진행방향이 수월해져요. 물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우르기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일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요. 배관과 처리장 관리를 맡고 있으면

서 때로는 Q/A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가 판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견들이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방향 모두 보다 깐깐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수용하는 편이에요. 일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하면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착역 없이 계속적으로 배움에 임하려고 해요.

25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다음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할 분은 제가 선보에 입사했을 때 본사에서 근무 중이셨던 대경산업의 이상진 반장님이에요. 이 분은 '대경산업의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수석 없이도 모두가 인정해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깔끔한 일처리 외에도 직원들 관리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직원들 관리를 하는 터라 그 과정에는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마찰도 있는데 이 분은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팀원들과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입사기념일	대한
생일	고객지원팀	안석영 (3/3)
고객지원	한진우 (3/2)	유병환 (3/16)
배송용 (3/19)	김태균 (3/2)	명성
조현상 (3/26)	생산1팀	손대석 (3/14)
관리부	엄익상 (3/18)	형남천 (3/5)
임용기 (3/8)	생산2팀	설계부
시재욱 (3/20)	박희순 (3/1)	오창배 (3/10)
구매부	이흥석 (3/7)	이종진 (3/9)
서상식 (3/24)	생산3팀	윤태중 (3/1)
생산1팀	조승희 (3/9)	입사기념일
김승우 (3/24)	임종화 (3/26)	생산관리부
생산2팀	생산계획	윤용남 (3/2)
손인철 (3/15)	김형욱 (3/20)	강보영 (3/23)
생산3팀	생산관리	김동희 (3/28)
지용천 (3/1)	신성인 (3/7)	관리부
김진삼 (3/30)	영입부	우태성 (3/28)
설계부	이주열 (3/1)	생산부
임기섭 (3/3)	구멍 공장	박준복 (3/2)
윤우희 (3/24)	생일	반정 (3/16)
신덕ENG	관리부	텐 (3/16)
이해욱 (3/1)	임용기 (3/19)	투안 (3/16)
영입부	대경	힌 (3/16)
박종혁 (3/14)	이상진 (3/21)	설계부
정수ENG	이문찬 (3/21)	김경수 (3/2)
허현정 (3/16)		영도 공장
허정민 (3/25)		입사기념일
		생산관리부
		김택현 (3/1)



칭찬 릴레이 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5개)



생생 현장의 소리

OK!
만족할 때까지

품질보증부 박상계

지난해에 모범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은 어떤 신지? 상을 받고 난 후 주위의 반응은?

저 역시 모범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본사에 있다가 영도 공장으로 와서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분발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하지만 저보다 더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주로 하는 업무는? 평소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보통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 업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제품상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드리는 일 또한 저희들의 주요한 업무죠.

평소 일할 때는 기쁨 씩 생산현장과 언쟁을 높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항상 현장 작업자들께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인지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평소에 일하면서 힘든 점은 저뿐 아니라 선보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 작업장 협소 문제와 납기로 인한 긴급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제품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고객에게 공급되는 점이 제 업무로 보았을 때는 가장 힘들어요.

제가 입사하고 1년 정도 되었을 즈음인가, 진짜 엉망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 고객에게로 납품되었을 때는 '내가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뭐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 계기로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선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혹은 미지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지만 선보의 우수한 인재들이 좀 더 선보 발전에 한 발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선보인들이 선보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보인들 스스로 선보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는 선보가 되었으면 하고, 저 또한 선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먹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